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15	06. 22	06. 29
대 표 기 도	이예준 형제	김새연 자매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독	이예준 형제	김새연 자매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령강림주일 -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 예배를 위해 미디어 팀에서 봉사할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회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있는 성도들께서는 목사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나눔의 시간 -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영희 권사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성령강림주일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8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윤미경 자매
성경봉독 Predigttext	롬 8 : 1 - 6(신p248) (Römer 8:1-6)	윤미경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성령과 함께 하는 삶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과 입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4. 백승민 자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5.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6.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형통의 허상

내가 열살 때 할머니와 모노폴리(땅따먹기 보드게임)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나는 모노폴리 게임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과 집, 그리고 호텔과 통행료 징수소에서 공원까지. 그런데 내가 모노폴리 게임에서 깨달은 것은 ‘모두 통속에 다시 넣을 시간이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나면 집이나 호텔을 넣어야 했고, 그 많은 돈도 다 넣어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치우기가 싫었습니다. 게임에서 드러난 내 능력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싶었습니다. 게임의 왕자로서 느끼는 승리의 쾌감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고 승리의 감격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찾아온 승리에 취한 나머지 잠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동안 게임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만큼은 내 것인양 정신을 다 빼앗길 수 있었지만, 그것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될수도 있고, 돈이 될수도 있으며, 외모나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삶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스치는 농담과 같아서 잠시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칠 때면 그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주인에게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빌려 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기에 모두 상자에 도로 넣어 두어야 합니다.

인생게임 / John Ortberg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에서 어떤 감정이 드나요?
2. 성령 체험한 경험들을 나누세요.